

우리들의 축제 '목멱대동제' 내일부터 3일간

단과대별 축제와 학교 후원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

2005년 목멱대동제가 오는 24일부터 3일간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목멱대동제의 구호는 '조각모음'이다.

이제는 윈도우에서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디스켓의 불필요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공간이 넓어지듯이, 목멱 대동제도 단과대별 특성을 살린 행사를 통해 동국대 전체의 축제로서 거듭나자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대동제 기획단장은 "총학생회가 부재해 총학생회 차원의 축제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단과대학별 특성을 나타내는 축제를 치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목멱대동제에서 총학생회 비대위(비)대위원장=구본훈·국교4는 생협학생위원회와 함께 △카라티어 대회 △6·15 김밥말이 대회 △그림공장의 반미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카라티어 대회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게임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다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는 6·15 김밥말이 대회는 축제 둘째 날인 24일 오후 3시 만해관 앞에서 진행된다. 김밥을 6.15m까지 끊어지지 않고 만드는 6·15 김밥말이 대회는 재미와 함께 6·15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

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김밥말이 대회의 참가인원은 한 팀당 10~15명이다. 한편 팔정도에서는 축제 시작일 하루 전인 23일부터 이틀간 그림공장의 반미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들도 흥미진진하다. 축제 첫날인 24일에는 우리 학교 댄스동아리 O.D.C가 주최하고 O.D.C의 10개 팀이 참가하는 댄스 페스티벌이 늦은 7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또한 다음 날인 25일에는 동국 락페스티벌 조직위가 주최하고 피어리스

턴 외 18개팀이 참가하는 락 페스티벌이 늦은 5시부터 10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락 페스티벌에는 특별게스트로 신해철과 넥스트가 출연한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백상응원대제전이 펼쳐진다.

우리학교 백상응원단 외 3개팀이 출전하는 이번 응원제전은 개그맨 안상태(안어빙)의 사회로 늦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수 휘성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오늘 열기를 대동제로 ... 지난 20일 만해광장에서 지리교육과와 체육교육과가 새내기 농구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황추상 기자 hjs228@dongguk.edu

100주년 기념 사업안 발표

6가지 항목으로 분과별 진행

100주년 사업 기념사업회(본부장=이관제·통계학)에서 100주년 분과별 진행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건학이념 구현 △역사 정립 △건립 △학술(편찬 포함) △행사 △홍보 총 6가지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학이념 구현사업으로는 건학기여 사찰방문과 내년 5월 전통등 전시회 및 불교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사정립을 위해서는 동대백년사를 편찬하고 자랑스러운 동국인 1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립사업부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캠퍼스 정문진입로 직선화 사업이 오는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건학 100주년기념관이 착공된다.

한편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산불교병원 준공이 완료돼 오는 6월 예비 진료를 시작하고 9월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술분야 사업은 다음해 5월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와 DMZ 생태 평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건학100주년 기념 편찬사업이 시행된다. 행사로는 오는 9월 7일 동국비전선포식과 내년 5월 동국백년문화 축전주간행사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홍보사업으로는 홍보영화제작과 기념엽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성적경고·제적 기준 강화

재학연한 12학기 등 주요학칙 변경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기준 강화, 성적 경고기준 상향률 비례한 주요 학칙이 변경됐다.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의 재학연한이 6년(12학기)으로 제한됐다. 이는 재학연한이 없었던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또한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성적경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시 제적에서, 성적경고 통산 3회시 제적으로 바뀌었다.

재학연한과 성적경고에 의한 제

적기준 강화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성적경고 기준도 상향돼 앞으로 평점평균이 2.0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재입학 자격 요건 또한 강화됐다. 성적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며 또다시 성적경고를 받으면 영구 제적된다.

한편 2005학년도 이전에 성적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재입학 기회를 가진다.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확정

학과 의견 바탕으로 한 결정 ... 일방적인 통보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감축과 일부 학과 통폐합이 확정됐다. 변화가 있는 단과대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정보산업대학이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제학과가 폐지되고 경영대학에 개설되던 광고홍보학전공이 2006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에 개설된다. 또한 경제학과 학생 편제정원이 5명 감축됐다.

경영대학에서는 경영정보학부가 폐지되고 경영학부 내 경영정보학 전공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 경영대학은 모든 학생을 경영학부로 모집한다. 또한 회계학 전공 학생 편제정원이 10명 감축됐다.

정보산업대학은 산업시스템공학부가 폐지되고 산업공학전공과 정보시스템전공이 통합돼 산업시스템공학과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 편제정원도 기존의 산업시스템공학부보다 감축됐다.

학과명칭도 이과대학의 생물학과는 생명과학과로 공과대학의 토목환경공학과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로 변경됐다.

한편 학내에서는 이번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감축과 일부 학

과 통폐합에 대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무엇보다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에 관해 학교와 관련 학과간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측은 이번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은 확정된 사항임을 분명하게 하는데 반해 해당 학과 교수들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며 대부분 논의된 사항이다"며 "학과와 미처 합의되지 못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장이 확고한 학교 측과는 달리 국제학과 폐지, 광고홍보학과 이동, 경영정보학전공 변경 등과 관련된 교수들의 입장은 학교측과 다르고 의견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국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학과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표명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은 앞으로 더욱 큰 단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학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지난 20일 본관앞에서 국제학과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국제학과 학생들.

우리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영상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학교가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사업에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왜 영상문화콘텐츠 분야인가.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와 감성을 문화콘텐츠로 가진 '꿈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말한다.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천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생산'보다 소수의 문화콘텐츠 생산자가 만들어 낸 '윤사마 현상'의 효과가 큰 것이 오늘날의 사회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영상문화콘텐츠이다.

현재 정부가 '문화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했지만 아직 경쟁력과 고급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학문적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했다.

▲특성화 신청 사업의 주요내용
우리학교의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은 문화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영화의 중심인 충무로 지역을 거점으로 21세기 동북아 영상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연구 혁신 사업이다. ▶2면에 계속

농구부 최희암 감독 선임



지난 17일 최희암 전 프로농구 모비스 감독이 우리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번 부임은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학교 농구부의 성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3년만에 대학무대에 복귀하는 최감독은 연세대 감독으로 역임하는 지난 16년 동안 팀을 20차례 넘게 정상으로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최감독은 "프로의 경험을 대학농구에 접목시켜 동국대를 중위권으로 끌어 올린 뒤 정상상을 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알림

이번 제1409호가 2005학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보내주시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410호는 2005년 9월 5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찍히면 뜬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 5월 26일 오후 5시까지
 면접일시 : 5월 26일 오후 6시
 원서교부 :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 dgupress@dgu.edu / 02)2260-3492

제작 : AD.RUSH www.adrush.co.kr

동대신문사

생협 독립법인 출범 1주년 평가기사

적극적인 홍보통해 인지도 높아야 할 것

식당 적자 개선방안 모색과 문화사업 다양화 필요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독립법인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사에서는 독립법인 출범 후, 생협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봤다.

▲독립법인 출범 후 생협의 변화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 대학의 구성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학교 생협은 9년간의 진흥 후 지난 2003년 4월 1일 독립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그 후 생협은 독립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생협의 독립법인 출범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조합원 가입 방식이 의무가입에서 자유가입화 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유가입을 통한 조합원 수는 약 400명 정도로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해 생협학생위원회 정재수(아간경영4)

군은 “유니폼을 입거나 자판기에 생협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생협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생협의 김용문 팀장은 “명절귀경사업, 문화답사 등의 이벤트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이를 두어 조합원의 혜택을 강화, 조합원 모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혜택의 차이는 조합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으므로 생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와 같이 임대매장에서 가격을 일정한 할인하는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지금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현 생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생협에서 운영하는 우리학교 식당은 6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동국관 식당은 구도서관

리모델링 후 법대, 불교대의 이전과 문화관 그림과의 경쟁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4.95%감소했다. 이는 학생식당의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고 상복원 식당에 비해 맛이 떨어지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식당 음식의 경우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동국관 식당의 식탁을 바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이용학생을 늘릴 계획”이며 단조로운 메뉴에 대해서 “올해 운영계획은 메뉴가 단순할지라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맛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협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니터원이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요원수를 확대하고 학생뿐

만 아니라 전문가를 위촉하여 모니터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당 위생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생협에서 진행 중인 ‘생산공장 견학’과 같은 문화사업이 요구된다. 이는 학생식당의 위생에 불신을 갖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직원이 직접 감지공장, 김밥공장을 방문하는 행사이다. 한편, 생협은 △추석귀향버스 △문화유적답사 △우산, 생활체육용품 대어 △생협장학금 등의 생활문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외에도 학내 구성원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 베품시장을 열거나 자취, 하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국택리지’ 제작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
nanakm@dongguk.edu

졸업자 취업률 60%

단과대별 1위 야간강좌 2위 공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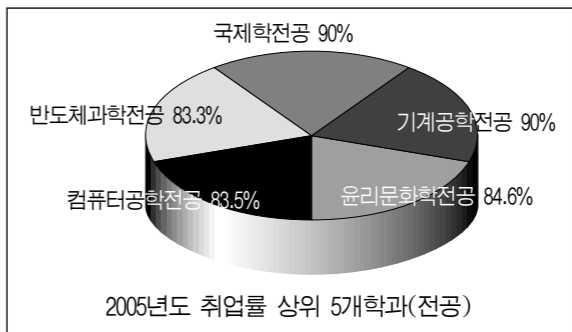
우리학교 2005년도 졸업자 취업률이 총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0.8%보다 0.8% 하향된 수치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2,543명이며 △정규직 취업자=1,196명 △비정규직 취업자=275명 △자영업 취업자=56명 △국내대학 진학자=6명 △국외대학 진학자=24명 △국내대학원 진학자=215명 △국외대학원 진학자=34명으로 구성됐다.

2005년도 졸업자 남·여별 취업 및 진학률은 △취업률=남(66%), 여(46%) △진학률=남(9%), 여(11%)이며 취업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비율은 각각 78%, 18%, 4%이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야간강좌를 제외하고 공과대가 7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산대, 불교대, 생자대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였다. 또한 취업률 상위 5개학과는 국제학전공과 기계공학전공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윤리문화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자 중 전공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총 1,527명의 취업자 중 1,007명이 전공과 일치되는 분야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520명은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이번 2005년도 졸업자 취업률은 대학정보공시제도 도입으로 언론기관에 공표되며 오는 2006년도부터는 학과 취업률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회전무대

붕어빵 축제

○…대동제에 진행되는 행사들이 전통문화(?)로 자리잡아간다는데. 상황인즉, 단과대에서 준비하는 대동제 행사가 주점, 가요제 등 유사한 프로그램 일색이라고.

대동제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각 단과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율, “맛있는 식탁 대동제, 매년 같은 메뉴.”

마법의 시간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한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는데. 이유인즉, 교직원이 매달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도 불만을 겪고 있다고.

교직원 정규근무시간이 5시가지임을 감안해 법회시간을 근무외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율, “맹맹맹맹, 4시 종만 울리면 서둘러 법회에 참석하는 동대텔라(!?)”

무비유환

○…요즘 각 건물 컴퓨터실은 넘쳐나는 고장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알아보니, 우리학교 컴퓨터 수리가 사전점검 체계가 아닌 사후수리 형식이어서 고장난 컴퓨터가 바로바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장이 잦은 만큼 타 학교처럼 외부업체와 연계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율, “After service가 아닌 A far service.”

사진 출석부

○…사진 출석부의 사용 취지가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대출을 방지하고 사제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사진 출석부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교수들이 사진 출석부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얼굴을 익히려고 노력함으로써 사제간의 친분을 두텁게 하고 대출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율 “사용 잦은 출석부는 이제 박물관에서”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 6월 28일~7월 4일
△2학기 휴학접수기간 = 8월 16일~8월 19일
△2학기 1차복학과 재입학 접수 = 6월 7일~6월 9일
△2학기 수강신청 = 8월 16일~8월 19일
△복수전공신청 = 8월 8일~8월 10일

건축 99주년 기념 리본아트작품전이 24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 99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리본 공예 소개 △작품감상 △제작과정 설명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200명에게는 리본으로 만든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불교의 보배를 본다... 박물관에서는 개교 99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불교의 근본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복학생 전공 결정 신청

2005학년도 전공미결정 복학생의 전공결정 신청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오는 6월과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 날짜는 전공 미결정 1차 복학생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2차 복학생은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2005학년도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이

며 개설된 전공의 4지까지 지원 가능하다.

선발위원회는 해당학과 전공별 인원배정 정원에서 2004학년도에 선발된 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이며 지원자가 배정여석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전공 배정 최종 공고는 8월 10일과 22일에 대학별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 동 제 따 라 잡 기

	24일	25일	26일
불교대		주점(오후 5시, 우체국 앞)	
문과대		주점(명진관 앞)	커피의 대항전(2시, 명진관 앞)
이과대	오목(2시, 명진관 앞)	가요제(2시, 명진관 앞)	커피의 대항전(2시, 명진관 앞)
법과대		주점(오후 7시, 우체국 앞)	가요제(오후 6시, 만해관 농구코트 일대)
사과대	평화의 도미노 게임(오후 1시~4시, 만해광장), 물풍선 게임(오후 3시~5시) · 가요제(오후 6시) · 신방과 난타공연(이상 나체발), 국제학과 와인시음회(동국관 3층 행정대학원 쉼터 강의실)	분식 요리 대회(명진관 앞), 주점	락소모임 라면명 공연(6시30분~8시30분, 불상뒤편), 주점, 빙 프로젝트(뮤직비디오 상영, 6시~8시, 명진관 계단 앞), 영화제(9시, 명진관 계단 앞)
경영대		주점, 사회학과 영화제, 종군위안부 할머니 사진전과 서명운동 체육대회	27일 회계과 문화제
생자대	가요제 · 노예팅(해화관), 학술모임(산불, 영화의 이해 등), 카트라이더 대회(예산(넷하우스 게임방))	9월 금강산 여행 선전 거리(나체발)	카트라이더 대회 결선(오후 1시, 중앙당)
공과대		백혈병 환우들이 팔찌 판매(해화관)	GPANG 게임 대전(24, 25일 신청, 26일 본선), 물풍탄 던지기, 주먹이 운다, 솜사탕 판매(이상 만해광장)
정산대	주점(학관앞), 산업시스템공학과 새내기 가요제 노예팅(새내기 가요제 중, 학관앞)	맥주 빨리 마시기(만해광장)	술던지기(여자=자유부, 남자=3점술, 만해광장)
사범대	가정교육학과 쿠키판매(1~7시, 학림관 중앙로비)	사범대 주점(학림관 앞), 교육학과 주점(학림관 앞), 지리교육학과 스타크래프트 대회(지리학 실험실)	정보통신공학과 찾집(학관앞)
동아리	SSID, ODC 대동한마당 댄스페스티벌(오후 7시~10시 대운동장), 선무부시연회(오후 3~5시, 불상앞)	동아리연합회 차와 정소도구 나눠주기(학생회관 앞), 피어리스트런 락 페스티벌(오후 5~10시, 대운동장), 검도부시연회(오후 3~4시, 불상앞)	탈 마당극공연(오후 6~10시 학생회관 앞), 무예누리 시연회(오후 2시30분~3시, 불상앞), 백상응원대제전(오후 6~10시, 대운동장)
야간강좌 총학생회		경영학과 주점(오후 6시, 통일광장)	예장분과(동그라미, 만화회) 전시회(팔정도), 체육교양분과(백열대) 장비 전시회(팔정도), 학술2분과(DUSSA) 전시회(다함관 앞)
		소모임 문화제-노래패(차풀) · 율동패(들풀) · 풍물패(마당공연, 야간강좌 가요제(오후 7시, 통일광장))	

칭찬합시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축 100주년을 맞아 동국회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⑨ 경영학과의 맥가이버 김종철 조교



는 점은,
= 그동안 우리학교 시설이 열악함을 많이 실감했다. 시간표를 잘 짜야 하는 것이지만, 강의실이 많이 부족하고 노트북이나 빙 프로젝트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도 부족하다.
강의실 부족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수업시간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는 시급하게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부
dugpress@dongguk.edu

- 행정조교로서 학과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 행정조교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속스럽다. 따라서 나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내 모든 조교가 함께 칭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조교의 역할은 시간표를 짜기 위한 강의실 배정을 서부터 수업시간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와 같은 수업 보조와 학과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경영학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아닐까, 재밌으면서도 어쩔지 마음이 안타까운 농담을 건네는 경영학과 김종철 조교. 그가 바로 9번째 칭찬합시다 주인공이다.

- 조교로서, 동국대학교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학교에 바라

신임 부속기관장 릴레이 인터뷰



신임 김영민(영어영문학) 교양교육원장

“해외 우수 대학과의 자매결연 확대 통해 세계속의 동국대학교로 거듭날 것”

라서 기존의 언어연구교육원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하고 분리 확장해 외국어교육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국제교류실은 국제교육원 산하에 있는 것이 해외 대학과의 자매교류나 학술협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동했다.

올해 국제교육원의 중점적인 사업은, 먼저 해외 우수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금 10여개의 해외 우수 대학들과 학점교류, 교수교환, 공동 학위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만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센터도 보다 전문화하

고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어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남아와 중국 등지의 학생들은 우리학교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 한국어교육센터가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학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면 한국어교육센터의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

그러나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 학생과 교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숙사는 단순한 숙사라기보다는 복합적인 한국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 영어교육의 실용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영어 패스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영어 패스제로 인해 100여명의 학생이 졸업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조건적인 영어 패스제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 연구강사 3명이 우리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필과목, 실용영어와 영어회화 강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영어 교육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학교·직원노조 임금 협상 난항

임금체계 개편 둘러싼 의견차이 커

지난 5월 초순부터 시작된 학교와 직원노조(위원장=최광제)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학교 측에서 올해 교원 임금체계가 성과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직원 임금 체계 역시 같은 시스템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임금 체계 자체의 변경은 임금인상 협상 전에 논의됐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노조는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6%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학교는 임금 체계 변경 같은 경우 직원노조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에 직원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임단협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교와 직원노조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19일에 열린 2차 임단협 협상은 결렬됐으며 앞으로 협상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직원노조는 학교측에 2005 단체협약 요구안도 제시했다. 주요 요구안은 △공정한 직급승진 및 성과급제 준비 등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자녀 교육비 보조금 현실화 △기능직 처우 개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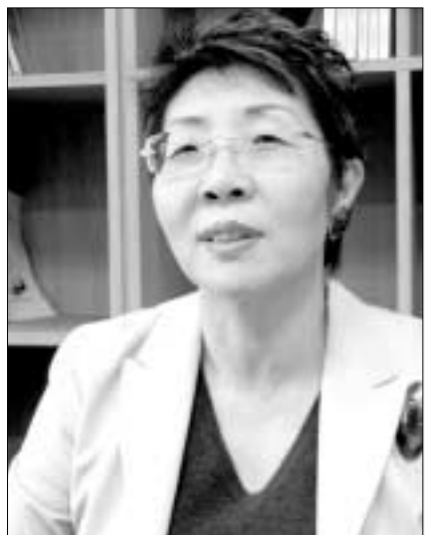
또한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반영 및 요구사항으로 △주5일제 시행 사항 반영 △육아휴직급여액 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는 대부분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국제교육원은 지난 행정조직 개편 때 신설됐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국제교육원은 우리학교를 하나의 정부로 보았을 때 외교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 또한 이러한 외교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교육원 산하에는 외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교류실이 있다. 이는 글로벌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으로 언어교육에 바탕을 둔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



신임 박명희(가정교육)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교수방법 연구와 지원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을 것”

실제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최대한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학습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강제성이 없는 순수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교수들은 △효과적 교수 방법 △강의평가 방법 △교육매체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각종 강연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강의클리닉 서비스를 신청한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 분석을 거친 교수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강의스타일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공하

고 학생들의 수업 반응에 따른 교육방법, 학생들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동기 유발 등에 관한 팁을 제공한다. 이러한 강의클리닉 서비스는 지난해에도 20명의 교수가 이용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해서 선행자 후배에게 대학에서의 학습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는 학생 멘토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입생이나 2학년 학생들이 3·4학년들에게 대학공부나 학습계획에 대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대학 공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준다.

이번 달부터 단과대학 학생의 이해와 효율적인 교수법 워크샵을 위한 영상물 제작을 진행한다.

이는 단과대학별로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향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것

로 단과대학 학생들을 개별 면담, 영상 촬영 및 분석, 비디오 테이프 제작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를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수상자가 발표되는 ‘다시 들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캠퍼스 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기억에 남는 강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을 비롯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내에 제작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인원 보강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동약로

개교 100주년과 총동창회



무리했다. 하지만 김재기 동문은 개표를 앞두고 이사회장을 퇴장했다. 이번 이사회 얼마전 임원 86명이 갑자기 보선으로 총원된 점을 지적,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많은 표차가 벌어진 이상 이사회에서 그의 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야?”


“우리학교 총동창회장이 선출되는 자리에 시장통분위기(?)가 웬말인가?”

지난 17일 제23대 총동창회장에 류주형 동문이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총동창회가 생긴 이래 첫 경선으로 치러졌다. 선거는 현재 총동창회장인 류주형 동문과 부회장인 김재기 동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됐다.

그만큼 양 측의 신경전도 대단했다. 선거 방법을 논의하는 중간중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지르는 사람부터 의자에 사대질하며 말을 막는 사람까지 있었다. 한번은 임시의장 입에서 “당신 회의 진행에 방해됩니다. 퇴장하세요!” 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정도였다.


총동창회 이사회를 통해 ‘명문 사학 동국, 건학 100주년 동국’이라는 우리학교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투표결과는 총 427명이 투표해 △류주형=340표 △김재기=82표 △무효=5표로 류 동문의 압도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한시간을 얻으면 백가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시간이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고를 수 있습니다.
 평생 느낌표 되어줄 책한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런닝머신, 아령도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필동 - 강북에서도 강남에서도 오시기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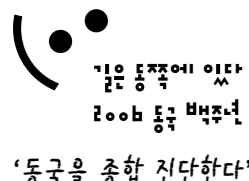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5학년도 후기

대 학 원 명	구 분	원 서 접 수 기 간	전 형 일	홈 페이지 주소	문 의 처
일 반 대 학 원	주 간	5/23(월)~5/27(금) - 인터넷 5/30(월)~6/ 1(수) - 방문	6/18(토)	www.dongguk.edu/gs	(02)2260-3116
영 상 대 학 원	주 간	5/16(월)~5/20(금) - 인터넷접수만	5/28(토)	http://home.dongguk.ac.kr/~dic	(02)2260-3763
불 교 대 학 원	야 간	5/16(월)~5/27(금)	6/ 8(수)	http://graduate.dongguk.edu/bs/	(02)2260-3098
행 정 대 학 원	야 간	5/16(월)~5/31(화)	6/ 4(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2~3
경 영 대 학 원	야 간	5/16(월)~5/26(목)	5/28(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대 학 원 명	구 분	원 서 접 수 기 간	전 형 일	홈 페이지 주소	문 의 처
교 육 대 학 원	야 간	5/23(월)~5/27(금)	6/ 4(토)	http://graduate.dongguk.edu/edu/	(02)2260-3110~1
언 론 정 보 대 학 원	야 간	5/23(월)~6/ 3(금)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
산 업 대 학 원	야 간	5/23(월)~6/ 2(목)	6/ 4(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603~4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야 간	5/30(월)~6/ 7(화)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7
국 제 정 보 대 학 원	야 간	5/23(월)~6/ 3(금)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iai	(02)2260-3733
불 교 문화대학원(경주)	야 간	5/30(월)~6/ 9(목)	6/11(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096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 간	6/ 7(화)~6/17(금)	6/18(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199

www.dongguk.edu

종합기획 3. 연구 분야 ② 산학협력



산학협력 전반적 대비책 마련 시급

구성원들 의식 개혁과 시스템 개선 요구돼

우리학교는 지난해 4월 산학협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 산학협력센터 등에서 분산적으로 맡아오던 산학 연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정부의 대학 산학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방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독립법인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산학기술협력센터와 창업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회계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 연구비 수주 등의 업무가 그동안 진행돼 오던 연구처의 업무와 중복되는 만큼, 현재는 연구처장이 산학협력 단장을 겸임하고 연구처의 산학연구지원팀이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점차 대학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독립법인 출범 이후 적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산확보 어려움 겪어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 점검

연구공간 지원 확충돼야

현재 산학협력단 산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진행해 오던 창업 보육,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 이외에 학교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운영해 오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이외에 오는 6월에 설립 예정인 기술이전센터와 디자인 연구소, 환경·식품연구소, 부동산 연구소를 산하 기구로 설치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

먼저 기술이전센터의 경우 학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등에 대한 특허 등록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학교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센터는 설립 이후 교수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디자인 연구소의 경우 학교 로고 디자인, 학교 마크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등 학교의 100주년 기념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다.

부동산 연구소는 건국대의 스타시티 개발을 통한 학교 수익 창출모델 검토를 토대로 현재 학교와 재단 소유에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먼저 산학협력단이 독립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 등의 회계적인 문제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비영리 단체로 정해져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영리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예산상에서 기업회계 원칙이 적용돼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 등에 대한 부과세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연구처장은 "외부에서 교수들이 수주해온 연구비 역시 기업의 이익의 원리로 적용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정부의 대학 산학협력단 독립법인 변경 시행 세칙이 내려진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위탁,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수주한 연구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구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오던 연구처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진행해야 하는 조직 내에서는 상당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박윤갑 연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처가 산학협력단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연 관련 의식 부족

한편 이러한 전체 대학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산학연 관련 의식 부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산학연 인적교류 실적, 산학연 위탁·공동 과제 및 연구비 수주 실적 등에서 좋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학협정

서, 자매결연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산학연 인적교류 실적의 경우 한양대, 이대 등이 교류기관수가 500여개 이상인 반면 우리학교는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60여 곳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학연 관련 활동의 외부 연구비 수주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연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학내에 산학협력 관련 시스템의 정비와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 등이 더해지면 앞으로는 지표들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문 탐구를 통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을 통한 산업계로의 지식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의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자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 역시 산학협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개혁 뿐만 아니라 학내에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산학협력단 산하 산학기술협력센터 점검

인력부족... 외부연계활동 어려워

산학기술협력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산학협력단 산하 기구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통한 이프과 기업의 기술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중소기업청 주관 컨소시엄에 과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을 수주 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 100억 규모의 서울시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를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7월 발표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외부 중소기업에 이론적인 기술을 지도해 주는 기술지도대학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20여개의 기업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대외 활동이 많은 업무인 것에 반해 센터 전체 인력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

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담당교수와 직원 1명이 전체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산학기술협력센터장 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교수는 "점차 대학과 외부 기업 간의 연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력의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 활동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이 큰 도움이 되는 것에 반해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는 동문들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할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역시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타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력과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사설
참다운 축제를 만들자
동학의 축제, 대동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통 '축제'라는 단어는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공부에 찌든 고3도 '대학 축제'를 그리며 지친 마음을 다잡아 보고, 할머니, 아저씨 모든 이들이 축제를 떠올리며 즐거워 한다. 그런데 활기가 넘쳐야 할 우리대학은 축제 준비 분위기가 영 시원찮다. 축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 그런지 각 단과대와 학교에서 준비한 행사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연유인지 본래 의미인 '하나'가 되지는 행사보다는 대중문화 행사만 뜽고있고 인기다. 취업난에 시달린 탓인지, 개인주의가 강해진 사회분위 영향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대학문화를 살펴보면 크게 변화했다. 90년대 후반까지 대학생들의 이념과 대학문화 표층의 장이었던 축제가 어느새 대중문화로 바뀌었다. 각 대학에서는 인기 연예인을 초청해 가장 주력하고 있다. 이는 대학 축제 흥행과도 연결된다. 학생이 주인이 아닌 연예인이 주도하고 학생들은 구경하는 축제가 돼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돈을 벌고, 술마시는 흥행 마창 주점행사도 인기행사다. 우리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년 축제 단골메뉴가 항상 있으며 주점은 9곳에서 진행된다. 매년 비슷한 행사가 진행돼는 탓에 학생들의 전체적인 참여도 낮다. 이렇게 되면은 축제를 면하려면 변화야 한다. 일관된 행사는 대학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행사로 학생들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 또 발전적인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과대의 '요리대회'와 사과대의 '평화의 도미노 게임' 생자대의 '백혈병 학우들이 팔찌판매' 등 종종 눈길을 끄는 축제도 보이지만 이색적인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축제다운 축제'를 맞이하려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참여부터 예술적인 부분까지, 대학문화를 배우고 즐기려면 우리가 가꾸고 노력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축제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면 다음 축제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만평
정명근 gmgc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겸 주간 홍기삼
부주장 장재현
편집국장 정경환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 /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결산 공고

학교회계 자금계산서(교비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자금계산서 종합대차대조표(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종합) 수익사업회계 자금계산서 부속병원회계 자금계산서

Table with 4 main sections: School Accounting (교비회계), General Business Accounting (일반업무회계), Comprehensive Balance Sheet (종합대차대조표), and Revenue Accounting (수익사업회계). Each section contains detailed financial data for 2004, 2005, and 2006, including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대학구조조정 열풍 속

대학들은 지금 살빼기 전쟁 중

제도적 기반 마련된 구조 '개혁' 이뤄져야



일러스트 <림>

대학의 구조조정 열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교구조개혁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오던 대학 통·폐합 및 정원감축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정책의 결과로 각 대학의 구조조정 실적은 곧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인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각종 수도권, 지방 사립대학을 역시 앞다투어 대학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대학 '슬림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화오리가 불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학 교육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 여건이 점차 부실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각 대학을 역시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재정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시행 계획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과 예산·합병 장려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립대학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6일에 열린 '대학교구조조정 재정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을 접수받고 이를 평가해 올해 대학에 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가시화된 성과에 따라 각 대학들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해마다 증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결과 각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부 입학정원의 10%이상을 감축하고 2005학년도 전

입교인 확보율을 55%, 나아가 2009년에는 65%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지속적인 학생 정원 감축과 전입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대학들은 현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학정원의 감축과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들의 행보에 대해 국내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현재의 대학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정원이 감축되거나 학과가 통폐합 되는 경우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의 저항 역시 대학 당국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한 구조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현

덕 충북대 기획협력처장은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계획 중인 재정 지원 규모로는 부족함이 있는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역시 단순히 재정지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화 분야에 대한 육성 교육 여건의 개선을 목표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고등교육법 제정,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등 각종 대학교개혁 관련 법령 등을 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의 '몸집' 줄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한 급격하고 무리한 계획보다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학교의 비전이 면밀하게 고려된 장기적인 안목의 개혁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과도한 정부 정책에 대학들 '갈팡질팡'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문연구 중심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찾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질적인 수준보다 양적으로만 비대해져 매년 신입생 입학정원 미달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대학교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학교구조조에 대해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지는 않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업무 진행에 대한 여러 관련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의 대학교구조조정 정책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대와 충남대 합병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얼마 전 결국 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전에 구조조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한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보다 앞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커 결국 합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반발은 사립대학 구조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체적으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사립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통폐합·신입생 입학정원 감축 등에 들어갔다.

하지만 급히 시행되다 보니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당사자는 결국 교수와 학생인데 구조조정의 주체인 학교가 이들의 의견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대학 관계자는 "자기학과가 없어진다는 데 과연 누가 찬성할 것인가"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사립대학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공립대학보다 재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등록금 수입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구조조정 후의 학생수 격감과 국·공립대학과의 등록금 격차라는 문제를 해

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교구조개혁의 사립대학관련 처우는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지난 12일 연세대 정장영 총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이나 혁신은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대학 자선인므로 일률적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은 대학한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별 대학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점점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 이에 따라 낮아지는 국가경쟁력을 고려해볼 때 대학교구조조정이 우리나라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결과가 결국 대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보다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타대학 구조조정 현황

'맞춤형 프로젝트' 통해 경쟁력 제고중

정부의 대학교구조조정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대학교구조조정 바람이 대학가에 불고 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강수'에 각 대학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사립대는 대학교구조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이지 않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2005학년도 신입생을 100명 감축해 모집했다. 또한 어문학과와 인문학부를 문과대학으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학과통폐합은 해당 학과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 학교측에서도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의 한 관계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또한 학과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수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유전공제'를 도입했다. 자유전공 제란 각 학과 정원의 5~15% 인원이 모여 구성된 자유전공학부를 개설해, 2학년 진급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진학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건국대 역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학과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공희망자가 적어 학과 유지가 어려웠던 불어불문과와 독어독문과를 내년부터 통합해 'EU문화정보학과'로 통합한다. 또한 히브리어과도 '히브리·중동학과'로 개편된다. 새로 생기는 학과에는 순수학문보다 실용적 색채가 강한 과목이 개설돼 경쟁력이 높아질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625명 감축했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기초교육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립대인 서울시립대는 특성화 평가항목에 적용된 학생정원 감축사항에 따라 소수 인원에 한해서 학생을 감축할 것을 밝혔다.

이렇듯 각 대학들은 대학교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우리대학 또한 현실에 맞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림>
lim1105@dongguk.edu

2005학년도 '전공미결정 복학생' 전공결정 안내

1. 관련 : 학칙 제26조(전공결정) 및 학사내규 제16조(전공·학과)

2. 신청대상 :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3. 2005학년도 '전공미결정 복학생' 전공결정 일정

전공결정 절차	대상	기간	비고
① 전공 신청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5. 6. 7(화) ~ 6. 8(수)	1차 복학시기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2005. 8. 8(화) ~ 8. 10(수)	2차 복학시기
② 전공 배정 최종 결정 및 학정공고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5. 8. 10(수) 예정	학사지원실 (대학별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2005. 8. 22(화) 예정	

4. 전공결정 신청방법

- 전공 신청원에 자신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 작성된 전공 신청원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각 대학 교학과에서는 개인별 신청원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에 날인한다.
-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자신이 접수한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복학생 전공결정 기준

-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 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성적 경쟁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4학반기준): 35학점(단,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30학점)
-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1기준: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2) 제2기준: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6.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1) 2004학년도 학부제 모집단위 대학(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공과대<건축공학부>, 정보산업대<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

: 학번과 상관없이 아래 기준으로 전공결정한다.

○ 배정여석이 있을 경우 정원내에서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 배정여석이 없을 경우 학점평점이 2005학년도 1차 전공결정 당시의 전공별 컷트라인(배치)을 상회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되며, 선발정원 잠식에 따른 일반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외 관리한다.

(2) 2004학년도 학과제 모집단위 대학(문과대, 이과대, 공과대<건축공학부 제외>, 정보산업대<정보통신공학전공>)

○ 해당 전공 1지망시 학번 및 컷트라인에 상관없이 희망전공에 배정한다.

7. 정원의 일화자

가. 대상자: 교포 및 외교관자녀, 외국인,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등

나. 배정원칙

본인의 희망전공에 우선 배정하며, 선발정원 잠식에 따른 일반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외 관리한다.

2004학년도 후기 졸업연기 신청 안내

1. 대상 : 2004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로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원인정각 포함)

2. 자격요건

가.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졸업논문 포함)
* 졸업논문(졸업동행시행 등) 불합격으로 수료처리된 학생이 제1전공 졸업요건을 논문 합격을 충족할 시 졸업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나. 복수전공 최자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2개 학기 내에 복수전공(졸은 교외 부 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3. 접수기간 : 2005. 5. 25(수) ~ 31(화)

4. 접수장소 :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5. 유의사항

가. 성적처리 완료 후 졸업연기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개별 통보.

나. 2004학년도 전기에 졸업연기 신청한 후 1학기 추가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 졸업연기자의 학적은 재학생으로 함.

라. 졸업연기는 2학기까지 가능.

마. 졸업연기 신청 결과는 6월 8일(수)까지 신청자 명단을 학사지원실에 통보.

교 무 처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6월) 시행

- 접 수 : 6. 3(금)~6. 10(금)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 시 한 : 2005. 6. 18(토) 10:00~12:30 휴학관 1, 2층
- 대 상 : 영어패스제대상자 및 일반모의토의 신청자
- 접수시 지침을 : 반영률사건 두장, 신분증(본인인접수 가능)
- 응시료 : 5,000원
- 시험일 준비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볼펜, 연필(사포)
- 문 의 : 국제교육원 (전화관 1층, 2260-3471, 3590)
- 주의사항 :
 - 10시00분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2005-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금(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보존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005-1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2005-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5. 5. 16(화) ~ 31(화)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환경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7. 제출서류 :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다. 기타 가정환경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학업성적 및 사회봉사는 자동으로 점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학 생 처

교 무 처

우리 대학은...

우리 학교 구조 개혁 현황 점검

교육 여건 개선 위한 구조 개혁 방안 검토·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은 △대학의 특성화 및 산업·인력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력 양성 △교육·연구의 질 개선 △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혁신 토대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 역시 현재 교수 충원과 입학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년 이내에 국내 3대 사학과 세계 100위권 안의 대학 진입 목표를 진행 중인 우리 학교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관리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부의 산업공학과와 정보시스템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각각 통합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학과 통·폐합을 결정하는 학과에 한해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교수를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학과 통·폐합의 선별 기준으로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부의 경쟁력의 타당성 △사회적 수요 △교과 졸업생들의 지원율 등이 적용된다.

▲학교 특성화=교육부는 2005년에 다년간 150여억원을 지급하는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해 우리 학교는 정부에 수도권 특성화 지원 신청 사



▲정원 감축=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2006학년도 입학생, 대학원생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경제학과 △회계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등의 정원이 감축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원 감축에 있어 현재 교원 1인당 40명 정도의 학생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토대로 한 정부의 방침 수준으로 맞춰갈 생각"이라며 "겸임교수와 초빙강사를 포함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5명 정도로 줄이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학생정원 감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을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특성화추진단을 구성해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의 장기적인 특성화 사업 분야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의 유광호 계장은 "블로그정신을 바탕으로 생명과 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문화에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대학 구조개혁의 최대 기준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우리 학교 역시 교육·연구 개선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에 진행된 조직개편에서 △교양교육원 △국제교육원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신설됐다. 또한 조만간 4천8백평에 달하는 필동병원 리모델링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강의실과 연구실 등이 확충되고, 대외적인 학교홍보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학과 통·폐합=학과 통·폐합의 경우 2개 이상의 유사, 중복 학과를 단일 학과체제로 전환해 특성화된 학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 역시 2006학년도에 △사회과학부 내 국제학과 폐지 △경영대학의 광고홍보학과를 사회과학대로 이동시키는 한편, △경영정보학부의 산업공학과와 e-비즈니스학과를 정보

khm0626@dongguk.edu

전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우리대학의 구조조정

전반적 방향설정 · 구성원 합의 우선돼야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 중에 있는 구조조정 과정은 학내 구성원 중 누구하나도 배제된 채 진행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전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 대안들을 도출하고 합의해 나가야만 한다. 이에 교수, 학생, 직원이 바라보는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그 속에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합리적 의사 결정과 집행시스템 구축할 것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달라.

김윤길=현재 대학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그 역량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대학이 양적 성장에만

학부, 학과 특성화 위한 전략 마련해야



김윤길 기획예산처장

집중해, 기술기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도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병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본다.

박부권=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수 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매년 정원의 10% 정도를 감축할 것을 유도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학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만큼 학부, 학과를 특성화 시키는 생존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의의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 두어야



김윤권 (이전 정통4) 아간감사 총학생회장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윤길=정부 방침에 대한 취지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반적인 과정이 정부의 국고지원금 수주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과 이해과정 없이 전반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전반적인 고민 없이 단기간에 무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점은 지적돼야 할 부분이다.

김윤권=대학 구조조정 전반적인 방향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전망을 밝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은 기업 논리와도 같은 경제적인 이익 등 부분에만 치우치고 있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대학 사회에 대한 기반이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만을 부추기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 바탕돼야



최종학 정외3·정치학연구소장

△우리대학이 올바른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최종학=현재 학생들에게는 우리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학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문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학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만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대비책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박부권=대학 구조개혁 안에는 우리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대학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화를 위한 방향 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야 하며 전반적인 구상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학교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정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리=김정은 기자 bob83@dongguk.edu

2005-여름학기 사회봉사 단원 모집(학점 신청)

- 신청자격: 재학생(학년 학과 구분 없음)
- 신청기간: 2005. 6. 8(수) 10:00 ~ 6. 10(금) 24:00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 봉사활동 기간: 2005. 6. 28(화) ~ 8. 31(수)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 가. 일시: 2005. 6. 25(토) 08:20 ~ 17:00
 - 나. 장소: 특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시간 엄수
- 봉사활동 방법: 구체적인 봉사일정 및 시간은 봉사자 담당자와 협의한 후 조정가능 (봉사활동 기간 및 프로그램 안내: 6월 7일부터 인터넷 게시)
- 봉사활동 대상기관: 200여개 기관 600여개 프로그램
- 사회봉사 신청평가 및 학점처리
 - (1) 평가 방법: Pass 또는 Fail로 처리.
 - ※ 2005년도 봄학기부터 성적평가 시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적기록부에 'F'로 처리됨(단, 평점계산 불포함)
 - ① 사회봉사 수강신청 후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한 경우 (단, 이미 예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음)
 - ②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이수 후 봉사기관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자
 - ③ 사회봉사 수강신청 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기 예비교육 이수자)
 - ④ 사회봉사 대상기관 활동결과 평가서 A,B,C,D,F중 "F"로 처리된 경우
 - ⑤ 사회봉사활동 소감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
 - (2) 학점인정: 여름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단, 현장봉사는 학점 이수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총 봉사시간으로만 인정함)
 - (3) 학점 인정시기: 여름학기 활동자(2005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반영)
 - (4)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5) 전체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기 까지 취득가능 함.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기간(봄학기/여름학기/가을학기/겨울학기)중 봉사활동 가능한 학기를 선택하여 재학기간 중 2학기까지 졸업이수 학점으로 취득가능 함.
 - 9. 사회봉사 인센티브 제도 실시 및 지원사항
 - 가. 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봉사훈장 수여/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시간인정
 - 나. 근로 장학, 연수, 취업 시 우선 추천
 - 다.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 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람봉사단)

동국참사람봉사단

2005 하계 해외봉사 단원 모집

- 목적: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국제경험과 봉사능력 향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중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
 - 신청 자격: 재학생
 - 선발 기준
 -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자
 - 나. 각 전문분야별 봉사동아리 회원
 - 다. 봉사활동 경력자 및 특기자 우대
 - 라. 여학 능력자(중국어/영어) 우대
 - 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파견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임의의를 거쳐 결정함.)
 - 선발 인원: 20명
 - 봉사 기간: 2005. 7. 19(화) ~ 8. 2(화)(기간 중 2주) 「14박 15일」
 - 신청 기간: 2005. 5. 30(월) ~ 5. 31(화)
 - 봉사지역: 중국 사천 지역
 - 봉사활동 내용: 한글교육, 컴퓨터, 한국의 이해,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노력봉사등
 - 소요경비: 학생 부담 「1인당 50만원」 (기타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봉사단 조정 양식)
 - 접수처: 학생복지실(본관3층) (※ 위 일정은 봉사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전화: 2260-3049

동국참사람봉사단

2005학년도 하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시행

- 연수기간: 2005. 7. 11(월) ~ 8. 19(금) (6주) (출국: 7. 10(일), 귀국: 8. 20(토))
- 연수기관: 중국 상해사범대학
- 연수인원: 제한없음 (단,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수 불가)
- 연수내용: 외국인 대상 중국어학습
- 연수경비: 자비부담 (1인당 기준)

구분	금액	비고
등록비	\$40	
수입료	\$450	
기숙사비	\$6	2인실 · 1일 기준
식비	\$6	1일 기준
기타경비	별도	왕복항공료 · 주말과외활동비
- 학점인정: 「해외 중국어연수」 3학점 (학부과정에 한함)
- 신청자격: 학부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재학증명서 1부
 - 다. 중국 상해사범대학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국제교류실에서 교부
 - 라. 여권 사본 1부
- 신청접수: 2005. 5. 23(월) ~ 6. 2(목), 국제교류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혜화관 1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교육원

보리소

방향표시등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당혹해 할 때가 적지 않다. 정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나 틈만 나면 끼어들려는 차들이 적지 않고, 가끔은 사고와 연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오죽 바쁘면 그렇겠나 라고 이해하고 싶는데 문제는 진행방향을 알리는 소위 깡빱이라고 하는 방향 표시등을 켜지않나고 판잔을 하였더니, 미리 켜면 상대차가 오하려 간격을 좁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의 운전문화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앞되는 가 하여 왠지 허탈해 졌다.

대학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배양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의 공간이다. 학문 탐구는 자기 성숙임과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다.

심달타 태자는 생노병사의 윤희를 깨닫고 출가를 결심한 후 만류하는 아버지인 정방왕에게 "나는 이제 응당 저 열반을 취할 것이요, 저 열반을 증득할 것이요. 저 열반에 머물것이다" 라고 출가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여래로의 방향 표시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들어서고 싶을 때 미리 방향 표시등을 켜보자.

정우택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국적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항변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런 선택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적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오죽하면 국적을 포기하겠느냐고 주장한다.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국적의 명예를 벗어나려는 그들의 속내에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국적포기자, 법적책임 물을 수 없어

이번 논란에서 큰 문제는 국적포기에 동참한 상당수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데 있다. 더구나 이들 중에 공무원도 있다는 데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적포기파동에 국적법을 개정했던 국회의원들은 국적포기를 한 자들에게 재외



논단

김상겸
법과대 법학과 교수

세계화 시대에도 국민의 의미는 살아 있다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대우하여 각종의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이름을 공개하여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실명공개를 통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인권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아니면 한

국현실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헌법은 국민 누구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떠나는 것을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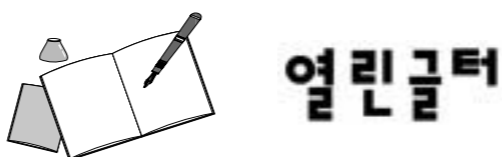
그렇지만 군대에 가는 것이 싫어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도덕적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외국인으로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실정법 안에서 국적포기자 다뤄야

이번 국적포기사태는 국가가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현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전체 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처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스스로 원정출산 내지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인으로서 단순히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깨닫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국적의 의미를 너무 국가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의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어떤 개인적 이유가 있더라도 사회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용인되기 어렵다. 그렇듯대로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길러서 세계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던 공동체에서 주어진 의무부터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인이 되는 길이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견보 : dgupress@dongguk.edu



e-열린글터

배낭여행의 오지 '한국' 국가이미지 홍보 노력해야

최근 세계적인 여행전문웹사이트 트립플래닛(www.lonelyplanet.com)이 세계 167개국의 배낭여행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호주,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인디아의 순이었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꼽은 나라는 호주, 이태리,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이미 세계 11개국 이상을 여행한 경험자들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배낭여행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관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는 등 배낭여행은 이미 여행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약 420만명의 외국인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한국을 다녀갔고 약 600만명의 내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출국했다. 관광수지 적자나 내국인 관광객의 초과 현상은 이미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배낭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날까.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정홍보처의 발표만 보아도 적어도 수만명의 학생들이 매년 배낭여행을 떠나며 외국유학생까지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수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향해 떠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 한가지는 세계의 배낭족들에게 한국은 배낭여행의 오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 관광전문가는 그 원인으로 열악한 인프라와 단순로운 관광상품을 꼽는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배낭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는 서울과 경주 등 전국을 합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마저 운영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배낭여행 시장은 장기적으로 관광상품의 다양화, 관광목적지 다변화, 고급 체험상품의 개발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부문인데 우리는 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으며,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일수록 배낭여행객을 유치하여 입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편 호스텔예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전문가 김 씨는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해마다 수만명의 학생이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의 유스호스텔을 둘러봐도 한국학생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배낭여행은 유스호스텔에서 시작되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한국학생들은 여행기간 내내 김치맛을 잊지 못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찾고 한국학생들끼리 유명 여행객자나 나와 있는 판매 박힌 루트만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배낭여행에 나선 한국학생들이 제대로 된 배낭여행을 한다면 한국이 배낭여행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배낭여행에 나선 한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외국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이 배낭여행자와 접촉하는 기회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호텔이나 민박집보다는 유스호스텔, 그것도 1인실이 아닌 도미토리식 룸에 묵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한다.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계를 맞고 있는 한국의 관광산업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배낭여행시장을 키워야 하고, 특히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일수록 배낭여행객을 유치하여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배낭여행에 나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국정홍보처도 작년 여름 해외로 나가는 배낭여행객을 활용해 '한국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캠페인은 배낭여행객들에게 'Dynamic Korea(다이내믹 코리아)'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 배지 등을 무료로 제공해 배낭여행객이 직접 입거나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국정홍보처는 "한해 배낭여행객이 3만~4만명에 이르는 만큼 '유직'이라는 홍보 메신저로서 해외에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이미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언제쯤 한국은 배낭여행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까.

김남철 (charly007@yahoo.com)

'나는 고양이...'를 읽고 이중성 극복하는 모습 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에 대한 답은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소이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찾은 답안은 '인간의 이중성 비판'이었다.

일본의 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고양이의 시각을 통해서 본 인간세상을 아주 기막히게 풍자하였다. 고양이는 상황이나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하며 집안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본다. 면학도인 척 하는 집주인이 매일 두 세장 정도 책을 읽다 잠드는 것, 차정 미학자인 허풍쟁이 메이테이의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보면서 고양이는 생각한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세한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고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본 그들의 모습 또한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들 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인들의 속세인적 측면, 배금주의 등 이 책의 모든 인간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위는 나의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이중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게 한다.

누구나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에 놀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집 앞 슈퍼에 갈 때와 시내 백화점에 갈 때의 옷차림이 다른 사소한 것

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나 도덕성과 관련된 양심 문제 등에 이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중성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러한 이중성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날카로운 문제 속에 은연중 베어있는 은은함과 따뜻함은,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감싸 안고 싶어 하는 작가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는 인간사의 단편적인 허무함과 씁쓸함을 동감하며 맥주에 취해 물웅덩이에 빠져 죽어간다. 하지만 내가 고양이었다면, 좀 더 밝은 면을 찾아보려고 애썼을지도 모른다. 고양이의 눈에 비친 것은 인간의 나약한 모습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중성을 극복하려는 인간들의 모습 또한 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고양이가 들려주는 얘기는 참으로 재미있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빛나는 관찰력과 재치 있는 표현력으로 많은 분량의 책이었으나 지루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박경문(사과대1)

줄다리기만 한 남북회담 내달, 장관급 회담 기대

10개월 만에 열린 남북 간의 회담이 긴 줄다리기만 하고 끝났다. 사실 북한 핵문제로 남북 간의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남북이 만나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는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달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한 것에만 합의를 했을 뿐, 회담에서 이루어낸 결과는 단지 우리가 비료를 북에 2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전부이다.

공중보도문 전문을 살펴보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매우 진부하고 구색만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회담재개의 대가로 비료를 지원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

에 이번 남북대화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다음달, 서울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장관급회담은 이번보다 더 상위의 회담이며 북핵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장관급회담에 대해 가는 기대는 다른 어느 때, 어느 회담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모처럼 재개된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전되어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의 공존공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다음 달 장관급 회담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은 이번 회담처럼 형식적이고 식상한 합의문만 도출해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신용호(사과대 경제3)

함께 해요 우리~ 나뉘요 사랑을~

이웃돕기 "동국 사랑 나눔 바자회"

2005. 5. 24(화) / 25(수) / 26(목) (12:00 ~ 16:00) 3일간, 다향관 앞

- 품 목 : 옷, 신발, 가방, 생활잡화, 장식품, 아동용품, 스포츠용품 등
■ 수익금 활용 : 생활이 어려운 우리 대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불우이웃 후원
※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으니 꼭 한번 찾아주셔서 따뜻한 나눔과 교류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2260-3049, 8661

주최 : 동국참사람봉사단, 여직원회
후원 : 중동상사, 에스런턴, 한국리본공예협회, 직원노동조합, 교수회

독자 사진첩



불교대 "야호~" ... 지난 불교대 주간 준비로 철야 작업을 하며 야식 먹는 불교대 학생회(위). 제등행렬을 하고 있는 불교대 스님들(아래). - 불교대 학생회

금주의 식단

Table with 5 columns: Day (월 5/23, 화 5/24, 수 5/25, 목 5/26, 금 5/27) and 5 rows of food items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교직원) with corresponding menu items.

달하나 천강에

노력과 열정 쏟는 학생이 되자



서인범
문과대 사학과 교수

며칠 전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핸드오피스로 보내온 한 통의 메일을 읽었다. '본교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종합 정리한 내용이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교수님들이 수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참고하라는 것이었다.

설문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끈 항목은 첫째, 어떤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가. 둘째, 수업 방식의 만족도였다. 이 문제에 대해 사학과에서 동양사 그 중에서도 중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볼까

한다.

먼저 학생들은 수업방식으로 강의식을 가장 싫어하면서도 선호한다는 점이다. 부조화 속의 조화라고나 할까. 나의 경우 교양강좌는 강의를, 전공은 발표수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토론이든 양자 간에는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라는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양강좌의 학생 수가 많을 경우 100여 명을 상회한다. 강의실을 들어서면 무가지 신문을 펼쳐 읽고 있는 학생,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학생, 개설서를 올려놓고 필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군상이 펼쳐진다.

매 학기 강의를 앞두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은 강의를 고대부터 청대(1644~1911)까지 개설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단대사(斷代史) 예를 들면 한족(漢族)정권인 한대(B.C.206~A.D.219) 혹은 이민족 정권인 원대(1206~1368) 등 한 왕조만을 중점적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딜레마이다. 중국사를 포괄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단지 중요한 사건들의 개연 설명에만 그치고 그것도 도중에서 그쳐

야만 한다. 반면에 단대사는 역사가 왜 그렇게 전개되었는가, 그 필연성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명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루는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동시에 수반된다. 그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서로의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으며, 동양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빈약한 학생들에게 있어 수업은 어찌를 짓누르는 버거운 짐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보조 자료나 VTR 등의 영상물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해를 돕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토론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버거운 토론 주제와 준비, 소수 학생의 참여 등에 대한 우려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약간의 변명을 말하자면, 먼저 주제의 제시인데 역사의 경우 새로운 주제를 매 학기마다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역사가 1년 단위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이 맞이한 학생들에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도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주제에 관련된 참고서적과 논문이다. 최근 동양사에 관한 좋은 서적과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한자가 많이 인용되어 있는 저서나 논문을 조사해서 정리 발표하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인데다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된 많은 참고 자료를 어학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고충이 따른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버거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머리를 싸매 준비를 하고 동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발표를 끝낸 학생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처럼 옹기백배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사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는 중국의 역사를 통해 한국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열의와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수업의 알찬 과실을 얻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항상 '왜' 라는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자세로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미아리

합의는 일방통행

▲지난해 9월,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에 따라 평택시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미군들에게 빼앗겼다. 정작 땅의 주인인 주민들과는 논의 없이 시의회와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다. 주민들이 시의회에 불만을 터뜨려도, 시의회에서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우리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국제학과 학생회는 '국제학과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학교당국에 시위를 했다. 주된 이유는 폐지를 해서가 아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폐지에 관련해 논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통보하는 학교당국의 의사결정방식에 서운할 뿐이다.

대학교조조정 관련해 학교측은 지난 4월, 국제학과 교수들과 논의해 폐지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5월 별다른 논의 없이 학교 측에서 '국제학과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통보했다.

▲왜 급하게 진행됐을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감축과 일부 학과 통폐합에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에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수혜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대부분 논의가 된 상황이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말했다.

등록금·공간문제 등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가 이번에도 논의의 대상에 학생들은 없다.

▲결국 정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으로 농토를 잃게 될 평택주민들에게 충남 산간지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 국제학과 폐지안이 확정됐다. 폐지까지 일관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하지만 후속보완책으로 학교에서는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황우성 편집장
hjs0228@dongguk.edu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느낌 들어 학생과 눈높이 맞추는 동대신문 돼야



이템을 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소리를 통해 들은 점은 신선했다.

6면 학술면의 경우 5·18 주간에 맞춰 이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진과 같은 이미지 사용이 부족했다. 이미지가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만큼 뽀뽀한 글로 채웠던 것은 좀 아쉬웠다.

또한 8면의 경우 매체비평에서 영화편으로 '월의누'를 아이템으로 다룬 것은 개봉주기에 맞춰 잘 다뤘다. 하지만 앞에 대화면에서 내용을 무겁게 다뤘다면 문화면에서는 조금더 독자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보다 독자들의 눈을 많이 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대신문이 학생들에게 많은 불거리를 제공했으면 한다. 신문이 흥미위주의 가벼운 아이템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독자층인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규(불교대 불교3)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집승의 시

김창범

거기 묶여 있는 것은
집승이 아니다
거기 숨죽이고 있는 것은
집승이 아니다
그러나 주인은
집승이라고 한다
한 마리 순한 집승이라고 한다
아, 네 발로 벌떡 일어나

집승이여 그대는 무엇을 그리워
하는가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 쓰러져 있는 것은
집승이 아니다
거기 묻혀 있는 것은
말 못하는 집승이 아니다.

-시집 '봄의 소리'
(창작과 비평사, 1981)에서

동국문학을 떠받쳐온 기둥의 하나는 부정(否定)의 정신이다. 그것은 저 '만해'의 시에서 읽히는 완곡한 희망의 어법이며, '신경림'의 시편들에 보이는 묵묵한 저항의 문법이다. 그런 점에서 동양의 시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조는 진부한 점어시의 그것과 분명히 구별된다. 그것은 세상의 환영(幻影)과 시간의 집곡(集積)에 집착해 그러나 존엄하게 대응하는 싸움의 방식이다. 아무리 엄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더라도 시인은 투사(투사)이 이전에 가객(歌客)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때문이었을까. 김창범(金昌範:1947-)의 시들은 탄실한 노래가 된다. 시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대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한 노래다. '쉽게 포기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들'을 위한 노래다. 무엇보다 '힘없는 이웃'을 위한 노래다.

꽃과 나무와 새, 달과 석류 따위 지극히 서정적인 제재에서 지열한 싸움의 논리와 실존적 의미를 함께 읽어내는 그의 안목은 아무 시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봄의 소리를 그리며 '생각해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고함쳐야 들리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인, 김창범. 그렇게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정신의 파고(波高)를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윤제림
시인·서울예대 교수

독자서평

'살인자의 건강법'을 읽고



에밀리 노통의 소설 '살인자의 건강법'은 그녀 자신의 문학적 완성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소설 내에서 살해를 감행함으로써 그녀의 문학을 완성했다. 그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괴기소설이나 나를 법한 플롯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도 없다.

타슈는 니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고, 그것을 실제로 글로 썼지만 아무

도 그 본질을 눈치 채지 못했다. 유일하게 그것을 알았던 여기자 역시 타슈를 너무도 깊이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의 본질을 죽이고 희열마저 느낀다.

문학은 실제로 파악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설가는 해야만 하고 독자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 소설 속에서 타슈가 비웃었듯이, '피 한 방울 묻혀서 피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의미없는 책이며, 의미없는 독서다.

에밀리 노통은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광기를 이 소설에 담았다. 극단적이지만, 살인으로써 인물들은 본질을 찾는다. 소설 내에서 극대화 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감정은 누군가를 해침으로 나를 완성하고픈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은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

어떤 대상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탐구가 아닐까 한다. 사랑이든 증오든 그러한 감정은 인간을 성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극단으로 몰아간 이 작품이 무서울 정도로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이선아(문과대 영문1)

독서토론 프로그램 시행 및 1회 독서토론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 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운영 방법**
가. 개 회 : 연중
나. 신청방법: 화정된 토론일 2주전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dgu.ac.kr>)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10명 이내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 토론방식: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란 참조
라. 장 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 활동 계획**
가. 독서토론 내용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며 동대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나. 독서토론 내용을 책으로 출판도 고려한다.
- 제1회 독서토론 안내**
가. 일 시 : 5월26일(목) 오후3시~5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다. 진 행 : 철학과 최인숙 교수
라. 선정도서 : 엔트르피 / 제레미 리프킨 지음 ; 이창희 옮김, 세종서적 2000
* 단 이번 독서토론에 한하여 2학년이상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북한학과 명사 초청 특강 [김정일 리포트]의 저자 손광주 님과의 만남

현재 DailyNK의 편집장이자 김정일 이후 북한사회 연구의 권위자 인 손광주 님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김정일의 실제와 현재의 북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 를 시작 하기 전,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 : 동국관 1동 202호
일시 : 2005년 5월 24일 오후 5시
주최 : 북한학과 독서토론 소모임 인텔리겐치아
문의 : 011-9180-3254 회장 박세현

제23회 춘계명찰순례개최

- 순례일자 : 2005. 5. 27(금) ~ 5. 28(토) <1박2일>
- 순례장소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참 가 비 : 오전원(₩5,000)
- 접수기간 : 2005. 5. 18(수) ~ 5. 25(수)
- 접 수 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 출발일시 및 장소 : 2005. 5. 27(금) 오후4시, 정각원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티셔츠가 제공됩니다.

학 생 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설립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로스쿨 시대! 동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법과대학에서는 정부가 2008년부터 출범하기로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한 외부 환경변화와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교의 추진현황에 대한 진단과 그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전 동국인 여러분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4:00 ~ 16: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만해관 모의법정
- 주제발표 (사회: 김도현, 본교 법학과 교수)
▷ 제1주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김상겸, 본교 법학과 교수)
▷ 제2주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동국의 현주소 (변종필, 본교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동국로스쿨이 가야할 길 : 적정모델의 탐구 (김태영, 본교 법학과 교수)
- 중립토론 : 전 동국인

법 과 대 학

한문해석법 저자 심재동 선생 직강 여름방학 漢文 특강

- 특강목적** : 재학생들의 취업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문특강을 개설함
- 강의내용**
- 한자의 특성 : 제자의 원리
- 구성, 활용의 원리 : 육서
- 한자의 품사 : 단순어, 파생어, 합성어
- 단문의 기본구조 : 주·술·관계
- 단문의 확장구조 : 주·술·목·보 확장관계
- 복합문의 구조 : 병렬복합문, 주종복합문등
- 한시의 이해 : 절구와 율시
- 접수기간** : 2005. 5. 30(월) ~ 6. 3(금), 선착순,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학술관 1층)
- 강의기간 및 시간** : 2005. 6. 27(월) ~ 8. 19(금), 월·수·금 10:00~12:00
- 수강료** : 5만원
- 단문의 확장구조 : 주·술·목·보 확장관계
- 복합문의 구조 : 병렬복합문, 주종복합문등
- 한시의 이해 : 절구와 율시

* 문의처 :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02) 2260 - 3728 ~ 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시각장애 딛고 힘찬 삶을 사는 한장교(통계 68졸) 동문을 만나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없는 성공은 절대 없으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라”
 환갑을 넘은 나이이지만 20대인 대학생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한장교(통계 68졸) 동문.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인생사를 들어보면 이 흔한 이야기는 어느새 대단한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
 한 동문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낮에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 떨어져 지금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선천성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에게 시력이 없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좋은 습관”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원하는 직장
 과 검도 4단을 취득했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고 3수험생 마냥 하루 4시간을 자며 바
 른 생활을 하는 한 동문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보
 았다.

-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 지난 90년 1월 16일,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
 시 미군부대에 군납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가
 철수되면서 사업 실패로 이어졌다. 이 때 15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부도가 났다.
 어쩔 수 없이 월세방에 살며 매일 해결사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욕도 떨어졌다.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강에도 몇 번 갔었
 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죽음을 초월한 용기, 하늘
 이 솟구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면 된다”는 좌
 우명이 날 지켜줬다.
 한편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선무부’에서
 단순히 무에 맡고도 선의 정신을 배웠던 것이 나의
 좌우명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정신을 가르쳐준 동아
 리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을 다 갚은 5년 전부터
 매년 선무부원 중 가장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1화
 기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 ‘쓰리제븐’이다. 태권도 7단과 검도 7단을 달
 성하고 7개국어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낸다. 오전 2시에 일어나 4시
 까지 영·중·일·독어 등 7개 외국어를 공부하고
 5시 30분까지는 집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태권도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7시 30분까지는
 검도수련, 오전 8시부터는 업무를 하고 밤 9시 30
 분에 취침한다.
 7개 외국어를 익히겠다는 동기는 군납업을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생겼다. 처음에 영어를 하지 못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 어느날 영어
 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이때 내 자
 신에게 느낀 배움의 희열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 희열을 다시 느끼기 위해 여행 다니는 기본으로
 외국어를 공부한다.
 이밖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싶다. 점차 시력이 잃어가면서 많은 어
 려움을 느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작은 도움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마지막으로 학교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의 비결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다. 들이기
 까지는 힘들지만 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습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들여 하루도 빠
 짐없이 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좋은 습관을 길들였
 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
 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며 행복이다. 몸이 건
 강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학
 100주년을 맞아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까지
 도 서로 협력했으면 한다. 협력을 바탕으로 동국의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 바란다.

황주상 기자
 hjso228@dongguk.edu

인물동정

권혁재 군 서울 넷 페스티벌
 국내 경쟁부분 진출



우리학교 권혁재(영화영상4)
 군이 연출한 ‘플레이버튼’이
 ‘제6회 senef 서울 넷 필름 페스
 티발’의 국내 경쟁부분에 진출
 했다.

출품된 500여편의 작품들과
 경쟁해 선정된 이번 작품은 2004 대학영화제 특
 별상영작, 2004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대상,
 2004 CBS 디지털 영상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 젊은
 작가의 재기발달함이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 넷 필름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실
 시되는 국제 영화제로 수상작은 영화상영이 끝
 나는 다음 달 30일 이후에 발표될 계획이다.

고수동정



△양우철(물리학)=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그에 ‘European
 materials science society 학회’
 논문 발표를 위해 참석.



△이재섭(건축공학)=지난 21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플로
 라다 덴버에 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CMAA 세미나를 위해
 출국.



△류철(정보통신공학)=다음달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에서 진행되는 2005년
 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에 참관.



△신남민(교육학)=다음달 6월
 4일부터 12일까지 Orlando,
 Florida, USA에 ‘제 61회
 ASTD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 연례
 학술대회 한국능률협회대표단
 코오디네이터’의 역할을 위해
 참석.

김소연 교수 국책연구사업 선정



2005년 상반기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보건 의
 료기술인프라 개발사업에 우
 리학교 김소연 화학과 교수가
 주관 책임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압타머항체
 를 이용한 C형 간염바이러스 항원진단칩’으로
 개발이 성공하면 임상실험과 연계하여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상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한 차승재 교수 인터뷰

“현장 경험 살려 실무 연계교육 강화할 터”

선 것이 그리 심상치 만은 않다.
 이제 ‘차승재 교수’로서 우리에게
 새 선뜻 다가온 그를 만나보았
 다.

- 영화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
 르치게 됐는데.
 = 평소 현장을 있으면서 후배
 들을 양성하곤 열망이 있었다.

마침 기회가 닿아 동국대학교에 부임해 학생들
 과 함께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학교 영화영상학과에 대한 평소 생각은.
 = 동국대학교는 전통이 오래된 만큼 한국영화
 계를 이끌어가는 원로배우들을 많이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최민식, 한석규, 고현정,
 전지현 등 동국대 출신의 많은 연기자들이 현장
 에서 좋은 연기를 펼치고 있다.
 반면 연출 분야의 진출자 수가 적은 것은 항상

아쉬웠다. 때문에 실무와 연결된 교육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 내 강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무경험이 부족한 현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학생들
 이 실무현장에 갔을때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 필
 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수업방법도 현장에서 쓰이는 자
 료들을 토대로 재정 예산
 및 스케줄 분석에 관한 강
 의를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직업 선택의 폭이 넓
 어진 만큼 대학시절 다양
 한 관심을 갖고 자신이 좋
 아하는 일을 찾으려는 노
 려가 필요하다. 자신의 진

로에 대해 걱정만 하기보다는 원하는 분야의 권
 련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상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
 문학적 교양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회
 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및 철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 공부가 필수적이다. 또한 방학
 을 이용해 영화 스태프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moonzoo@dongguk.edu

차승재 교수 약력	1996년 노노필름 설립
	1998년 태양은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제작
	2000년 (주)씨이다스(현 씨이다스퍼쳐스)사업본부장(부사장)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풀란디스의 개 등 제작
	2001년 (주)씨이다스(현 씨이다스퍼쳐스)대표이사 화산고, 불날은 간다, 인디안 씬머 등 제작
	2003년 밀죽거리 잔혹사, 상공조, 살인의 추억 등 제작
	2004년 (주)씨이다스(구 시유리콤)대표이사 결연 범죄의 재구성, 역도산, 내 미래의 저우 등 제작
	2005년 2월 우리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부교수로 부임

제6회 동국벤처주간 행사안내

- 연구소 관련 세미나
 - 세미나 I : **농업 초청 세미나**
 “한국의 식품인증과 인증제도 및 농협 식품연구소의 현황”
 가. 강 사 : 농협대학 한승수 교수
 나. 행사일시 : 2005년 5월 23일(월), 16:30 ~
 다. 행사장소 : 산림자원학과 대학원 세미나실(해화관4층)
 - 세미나 II : **디자인 및 부동산 연구소 세미나**
 “동국대학교 브랜드이미지 고교화에 따른 디자인 전략”
 “한국대학교 스타시티 개발사례”
 가. 강 사 : (주)상상가가 대표이사 장명인(영산대 겸임교수) 건국AMC 구자중 팀장
 나. 행사일시 : 2005년 5월 25일(수), 15:00 ~
 다. 행사장소 : BSC 세미나실 104호
 - 세미나 III : **환경 식품연구소 세미나**
 “대덕바이오연환과 향후 발전방안”,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가. 행사주최 :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정경근교수, (주)GICTech 공길택대표이사
 나. 행사일시 : 2005년 5월 31일(화), 15:00 ~
 다. 행사장소 : 경영대학실습실 (해화관 2층)
- 대학생 대상 벤처창업 경연대회
 - 가. 벤처창업 경연 대회 참가자 : 분과 재학생 학생 및 대학원(석·박사) 대상
 - 나. 모집 및 심사 방안
 - 모집기간 :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 심사방안 : 1차 서류심사 후, 우수작에 한하여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발표 회를 가진
 - 발표일시 : 5월 30일(월) 15:00 ~
 - 시상일시 : 6월 2일(목) 예정
 - 다. 시상 내용

시상 내용	비고
대상 (1팀)	200만원 창업지원금 창업지원단 입주교회 부여
우수상 (1팀)	100만원 창업지원금 창업지원단 입주교회 부여
인기상 (2팀)	50만원 창업지원금

총 400만원 창업지원금 및 우수한 팀에 한하여 창업지원단 입주교회 부여
- 입주업체 간담회
 - 가. 행사주최 :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논의
 - 나. 행사일시 : 2005년 5월 27일(금), 14:00 ~
 - 다. 행사장소 : 창업지원단 회의실

주최 : 창업지원단 / 주관 : 산학협력단
 후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동국대학교 100년, 불교학과 100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총동문회 총회 안내

삼보에 귀명정례하옵고, 모교의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총동문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 5. 27 (금), 18:00
- 장 소 : 동국대학교 삼학동 3층 교직원식당
- 참가대상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생,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졸업생,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생
- 문 의 : 02-2260-3835, 8507

불교학과 총동문회 중흥총회 준비위원회

2005년도 명사초청 특강 올바른 대학생의 성문화

초청강사 : 구성애 (사단법인 푸른 아우성 센터 대표)

☞ 동국대 남·여 학생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 최 : 여학생실·학생상담센터
 일 시 : 2005년 5월 31일(화) 15:00 ~ 17:30
 장 소 : 분관 중앙당
 신청접수 : 5월16일(월) ~ 여학생실, 학생상담센터

*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 3058)로 문의 바랍니다.

여학생실 · 학생상담센터

제1회 대학원 실사 계시대 콘텐츠 공모

대학원에서는 실사 계시대를 설치하여 관련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이에 실사 계시대에 들어갈 콘텐츠(슬로건, 모토, 사진, 일러스트)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내용) : 교내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참여의식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
- 응모부문 및 제출규격

구 분	제 출 규 격	비 고
슬로건, 모토, 포어	제한없음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첨부
사진, 시각 디자인	이미지 화일	"
일러스트레이션	"	"

- 공모대상 : 전 동국가족(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시상(금) : 선정작 1점 (현금 2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할 경우 시상 취소.
- 안내사항
 가. 선정된 작품은 실사 계시대(화실층 1층 진입로) 게시 예정.
 나. 매 학기별로 지속적으로 공모 예정.
-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05년 6월 10일(금), 대학원 행정지원실 (☎ : 2260-3094)
- 발표일자 : 2005. 6. 17(금)
- 주최 및 주관 : 대학원 행정지원실

대 학 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건학 99주년 기념 리본공예 작품전

선물포장, 리본아트, 리본플라워의 어우러짐

기간 : 2005. 5. 24(화) ~ 26(목) 11:00 ~ 18:00
 장소 :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
 주최 : 여학생실, 학생복지실
 주관 : 한국리본공예협회(KRCA) (www.ribboncafe.co.kr)

* 리본공예 제작 실습
 * 학생 2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에코포럼 '문화콘서트'가 열리는 현장

세미나 탈피한 행사 참신해

우리학교는 지난해부터 생태환경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러 학문분야의 학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에코포럼'을 실시했다. 즉 에코포럼은 불교와 생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분야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학제적 연구와 교류의 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주제로 제1기 에코포럼이 시행됐다. 이어서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제2기 에코포럼은 '육망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아래 매번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던 에코포럼이 지난달 천성산 생태답사에 이어 이번 달에는 '문화콘서트' 형태로 열렸다.

지난 20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생태문화 멀티콘서트 ECO-歌舞(가무)'는 △영화 '나무를 심은 사람' 상영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신이경의 피아노 연주= '숲 속에서의 나날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특강= '경제성장은 끝났다. 우리모두 춤을 추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렇듯 에코포럼이 문화행사로 진행되자 관객들도 반가운 반응이다. 평소 에코포럼이 일반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해 잘 몰랐다는 기수 정(신광3) 양은 "환경과 관련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관람을 왔는데 생각보다 무척 재밌고 유익하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될 때에는 예술극장 좌석에 빈석이 없을 정도로 관객들이 가득했다. 또한 은은하고 명상음악같은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마치 잠시동안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었다.

마지막에 이뤄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특강 또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 시간에는 우리학교 사람뿐만 아니라 타대학 학생, 환경단체 관계자 등 에코포럼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특강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토의했다.

이처럼 정형화 된 발제와 질문 등으로 이뤄진 세미나 형식에서 탈피해, 시각·청각적 문화예술이 결합된 이번 에코포럼은 참여 구성원을 이끄는 새로운 자극이었다. 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문화부

dgupress@dongguk.edu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청중과의 대화

“이젠 ‘계획’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

“이런 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얼떨떨하다”며 자리에 앉은 생태잡지 '녹색평론'의 김종철 발행인. 좀처럼 나서지 않는 그가 이번 'ECO-가무'에서 '경제성장은 끝났다. 우리모두 춤을 추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딱히 준비해 온 글 없이 “나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첫마디로 시작해 말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 삶이 '경제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계획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 환경을 도외시하고 파괴해왔는지를 말했다.

특강 이후 청중과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김종철 발행인. 그 시간에 있었던 물음 중 몇 가지만 요약해보았다.

- 반환경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 원래 날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 대안 마련과 같은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다.(웃음)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중지하고, 일단은 원자력이라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저명한 세계 환경운동가가 있을 정도다.

환경보호는 거대 정치 조직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녹색당도 결국에는 친 환경적이지 않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때문

에 환경운동은 자기 삶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여야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정부정책으로 이것을 바꾸려면 생태분야 독재자 'ECO-히틀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 환경을 되살리는 데 있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환경운동은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경제적 시스템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우정'이 중요하다.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요즘 우리 삶은 매우 잘못됐다. 지역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운동 등은 소규모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좋은 활동이라 생각한다.

또한 농촌 가치가 살아야 한다.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7-8할은 돼야 국가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농촌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삶의 근간을 잃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는가.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문화단신

퀴어문화축제 27일부터

당당히 맞서는 기회가 되고자 기획됐다.

제6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5가 '퀴어질정! Queer Up!'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종로·광화문·홍대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수다회 퀴어夜話(야화) △전시회= '퀴어本色(본색)-제6회 퀴어문화축제 사진전' △파티=사전파티·레즈 비언을 위한 파티·모두 어울리는 흥겨운 댄스 파티 △무지개 영화제 △퍼레이드 등으로 꾸러진다.

특히 '수다회 퀴어야화'는 '한국 이반문화와 이반으로 살기' 등의 큰 주제 아래 △가족과 함께 살기 △파트너와 함께 살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또한 퍼레이드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인디포럼 2005 개최

독립영화축제 'The 10th Anniversary, 인디포럼2005'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구 허리우드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는 △2005독립영화 신작 29편 △해외특별전 17편 △다시 보는 인디포럼 20편으로 구성돼 총 66편이 상영된다. '다시보는 인디포럼'은 10주년 기획전으로, 지난 10년간의 독립영화를 정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막작으로는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는 박홍렬·황다운 감독의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가 선정됐다.

제10회 동국문화예술제 열려

일하며 쌓은 기량 맘껏 선보인 자리

대학축제 기간인 요즘, 같은 캠퍼스에 있어도 직장인과 학생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특수대학원 원생들은 어떤지 축제와는 거리가 멀 것만 같다. 그런데 우리 학교 특수대학원 중 하나인 문화예술대학원 원생들과 졸업생들이 만든 '제10회 동국문화예술제'가 지난 주 내내 열려 이런 생각을 무색케 했다.

'무상(舞象) 춤추는 코끼리'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공연예술제와 작품전으로 나뉘어 알차게 꾸러졌다. 공연 예술제에는 47명의 원생들이 △벽화 △연극 △시낭송 △미술치료 △경기민 요 △파리 3중주 △전통무용 등을 공연했다. 또한 동국갤러리에서 4일간 열린 작품전에는 문예창작과와 미술치료과 원생들의 개성있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와 관련해 행사 총무를 맡은 김민정 씨는 "주제에 담긴 뜻은 원생들 모두가 한 마리의 코끼리가 돼 춤을 춘다는 뜻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며 "예술적 기량을 펼치는 장이 되, 걸치레를 하지 않은 소박한 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가수 토니 안이 사회를 보는 등 다소 화려하게 공연이 치러진 반면 올해는 기획부터 진행, 구성 등을 모두 문화예술대학원 구성원들이 꾸렸다.

이에 따라 원생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특히 예술치료 공연의 경우 학과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원생들이 직접 참여해 연기한 점은 색다른

시도라는 평가다.

그러나 특수대학원 특성상 직장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람을 이끌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 원래 20일까지로 예정됐던 작품전시회가 갤러리 사정으로 하루 먼저 철수해 뒤늦게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기도 했다.

동국문화예술제는 벌써 10회째를 맞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지도와 관심은 부족하기만 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공연 못지않은 예술적 기량이 펼쳐지는 이 행사가 우리학교의 소중한 문화행사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작품 속

인물 대 인물

모녀관계, 갈등과 화해



한 여자가 있고 그녀에게 어머니가 있다.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의 한 편이면서도 평행하게 그려지는 직선처럼 그녀들은 눈물과 갈등의 묘한 교차점을 배회한다.

제2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고 1995년 발표한 박완서의 단편 '환각의 나비'는 딸 영주와 집간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함께 하숙을 치며 가장으로 돈벌이를 했던 영주와 어머니는 젊은 시절, 모녀라기보다 동지관계로 서로를 의지했던간,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어느 날 홀연히 집을 떠나 비로소 새로운 안식처를 찾는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 모성이며 어머니란 여자의 영원한 식민지일 수밖에 없는 모녀관계도 사실은 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애뜻한 모성 속에 감춰진 사실일테다. 우리에게 늘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대는 영원한 안식이자 도피 그리고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나이든 어머니가 세상이 맺어준 딸이라는 자식의 품 속에 영원히 기댈 수 없는 것이 작가 박완서의 이야기대로 그녀들이 부도덕하고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젊은 참으로 희망없고 단호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어머니라는 여자의 인생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방치하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영주는 어머니라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앉을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거다.

영화 '마요네즈'에서는 바로 이런 모녀관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엄살이 심하고 미스코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도 머리에 바른 그녀의 마요네즈 냄새를 경멸하는 딸 아정은 말한다. "엄마 미안해. 난 엄마가 없어."

그녀에게 어머니란 남편을 존경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더욱이 시집간 딸을 위해 김치를 담궈 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전형의 모습이며 그녀는 그런 어머니상을 애뜻한 모성의 실체라고 믿는 평범한 딸이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동정은 결국 환멸로 바뀌고 마는데 그녀의 변은 이렇다. "모든 게 억울해지고 망가져도 엄마만은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엄마니까."

시공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어머니란 존재는 완전무결한 모성을 발휘해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어머니로서의 권리만이 평생의 숙제이며 험박한 현실에서도 자기 앞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사랑과 헌신과 안정과 희망을 위해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 대야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어머니니까.

우리는 영원히 혼돈스럽다. 우리들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무엇일까.

이 두 작품은, 이젠 더 이상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빈자리에서 방황하게 될 우리들의 또 다른 실화인 셈이다. 그 빈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화해하게 되는 우리들의 실명이 난감한.

김윤경 객원기자(영화전공 석사과정)

agikongyong@hanmail.net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특강 ③

가중치로 결정해야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개인과 직장생활의 주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3가지 기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의사결정 기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이동국 대리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S전자의 관리팀 차장 담당자이다. 현재 관리팀장으로부터 본부 임원이 타고 다닐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동국 대리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S전자의 관리팀 차장 담당자이다. 현재 관리팀장으로부터 본부 임원이 타고 다닐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간 기준에는 8점이나 7점 등 적당한 점수를 중요도에 따라 매긴다. 이동국 대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기준에 따라 가격 10점, 성능 7점, 승차감 5점 등으로 가중치를 매길 수 있다.

둘째로 A사의 ‘번지러’, B사의 ‘잘나가’, C사의 ‘싸구려’ 등 대안이 될 차를 있는 대로 늘어놓고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마련한 기준별 가중치에 비추어 각 대안별로 점수화하여 가중치를 곱한다.

이제 각각 가중치 점수를 곱해 보니 가격(8점)×가중치(10점), 성능(6점)×가중치(7점), 승차감(4점)×가중치(5점)으로 함께 142점으로 평가되었다.

마찬가지로 B사 ‘잘나가’는 가격(7점)×가중치(10점), 성능(8점)×가중치(7점), 승차감(5점)×가중치(5점)으로 함께 151점으로 평가되었다.

셋째로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된 하나의 대안을 고른다. 이동국 대리는 가중치를 고려한 대안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B사 ‘잘나가’를 최종적으로 최적의 차로 선택할 수 있다.

한 두 성 전략기업컨설팅 전문위원

직업 돋보기 - PR 컨설턴트

체계적 관리로 경쟁력을 높인다

‘외의로 PR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다.’ ‘외의로 PR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이 두 모순된 명제가 어떻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보자.

한 PR인이 망해가는 이발소의 홍보를 맡았다. 마을의 두발은 모두 미용실이 장악한 상태다. 이 PR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마을 신문 ‘마을업소 탐방’ 코너에 이발소 기사를 내보낸다.

그런데 미용실은 이미 이발소보다 선진화 됐고 대체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PR이 사람들에게 이발소의 존재를 알리는 도구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이발소로 보내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강력한 PR도 대체나 열세, 혹은 정의와 상식을 뒤집기는 힘든 법이다. 모두에게 알린다는 것과 모두에게 작용한다는 것은 다르다. 결국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PR이 아니라 그 제품 혹은 기업, 혹은 서비스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PR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론 개인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다.

또다른 한 PR인이 망해가는 이발소의 홍보를 맡았다. 이 마을의 두발 역시 미용실이 장악한 상태다. 이때 PR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PR인은 일단 사람들이 왜 미용실

을 가는지 조사했다(대부분 마케팅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PR인이 할 일이다). 그 조사를 기반으로 이발소 개혁 전략을 수립한다(대부분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PR인이 할 일이다).

그 전략에 따라 이발소의 이름을 ‘김철수이발소’에서 ‘미스터가위왕’으로 바꾼다(CI회사 혹은 디자인 컴퍼니가 할 일 같지만 PR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인테리어는 물론 기존에 쓰던 수건들까지 모조리 산뜻하게 교체하고 입고 있던 구질구질한 흰 가운까지 벗어 던진 다(인사·총무팀에서 할 일 같지만 사실 PR인이 할 일이다).

면도에 간단한 피부 마사지를 결합한 패키지를 만드는 한편 드라이만 하는 손님을 위한 특별 가격을 제안하는 등 상품 구성에 손도 댄다(영업팀·상품개발팀)

발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PR인이 할 일이다.

그 다음 이 PR인도 마을 신문 ‘마을업소 탐방’ 코너에 이발소 기사를 내보낸다. 미용실로 전업을 한 건 아니다. ‘신개념 이발소’ 또는 ‘퓨전 이발소’ 정도로 변신했다고 치자(기업문화팀이 할 일 같지만 사실은 PR인이 할 일이다). 가위질이야 원래 미용실 언니들보다 선수가 때문에 이발소장의 머리 깎는 솜씨는 온 마을로 퍼진다(PR인이 PI라는 이름으로 할 일 같지만 사실 여기 서부터는 경영자가 할 일이다).

이처럼 가끔 PR은 개인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때로 PR은 세상을 바꾼다.

여준영

PCG(PR Consulting Group) 대표이사



일러스트 <김>

세소식

‘오레스테이아 3부작’ 공연

제13회 젊은연극제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 다음달 17일부터 5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우리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3학년 학생들이 공연하는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운명을 거부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존재의 근본을 장엄한 극으로 창조해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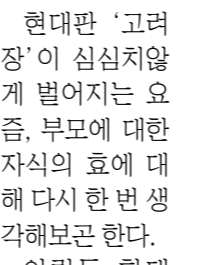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작품속에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말한다.

공연은 매일 오후 4시, 7시 30분 2차례 공연된다.

부모님 생전에 꼭 해드려야 할 일들



현대판 ‘고려장’이 심심치않게 벌어지는 요즘,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대적 효도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저자는 늦기전에 부모님과 연애에 빠지라고 충고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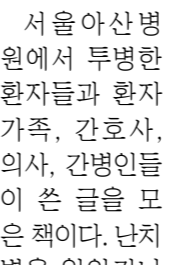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에서 투병한 환자와 환자 가족, 간호사, 의사, 간병인들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난치병을 앓았거나 투병과정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든든한 힘이 돼주었던 가족들의 사랑, 삶에 대한 투지들이 잘 담겨 있다.

가슴마다 사랑이



이 책은 ‘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 되기’가 거창한 담론이나 구호 차원이 아닌 ‘내 곁의 이야기’로 다가와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내 가슴에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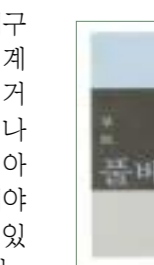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한다.

플래그



100년 전에 발표된 책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나쓰메 소세키 지음, 오석훈 옮김 /책세상/5천9백원.

플래그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한다.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 1. 목적
2006년 건학100주년을 맞이하여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에서는 40여개의 주요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 공모 분야
가. <10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제안>분야
나.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비지원>분야
3. 참가자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5. 선정 절차 및 기준
6. 당선작 발표
7. 상금 및 사업지원비 지급(총 상금 36,000,000원)
8. 당선작의 활용
9. <사업비 지원분야> 선정 시 의무조건

동대신문사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 1

빌 게이츠의 마음 사로잡기

동대신문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전, 저명인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1. 편지 내용
2. 1차 공모 기간
3. 홍보특사 선정
4. 인터뷰 기간
5. 인터뷰 대상
6. 기타

불가능은 없다! 세계로 가는 젊은 동국 - 도전, 저명인사 인터뷰

주관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 학생처 / 동대신문사